

지역 매 아리

김제시보건소, 3월 5일~28일
해피 맘 출산준비교실 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관내 거주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예비엄마들의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2019년 해피 맘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 출산준비교실은 매분기 운영하며 1분기는 3월 5일~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운영한다. 마지막 주 목요일은 수료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분기별 총 5회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내용은 정신건강증진센터, 국제모유수유 전문 강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루어지며 모유수유 자세 및 방법, 출산육아용품 만들기, 신생아 목욕 및 마사지, 분만호흡법 및 요가,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관리 등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에 대한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하여 매분기(3.6.9.11월)토요일 하루 임신부 체험활동 등 맞춤형 보건서비스로 출산 준비를 돕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특강' 사업을 실시하며, 4월 셋째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모유수유 간담회를 통해 아기의 오감을 자극해 성장발달 및 애착관계 형성을 위한 베이비마사지 교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상수도 행정 질적 고도화 추진

김제시(시장 박준배)에서는 상수도 업무 질적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상수도 점검원 근무복 착용, 명찰 패용, 점검실 명제 도입,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개선 등 상수도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원들의 상수도 점검 가정방문 시 주민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시로그가 새겨진 근무복 착용과 신분증을 패용하고 계량기 점검업무 및 민원상담에 나서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점검원의 신분을 명확히 하여 점검을 가장한 각종범죄(사기, 공갈)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시민만족,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지급된 새 근무복은 편의성과 통일성을 부여해 수도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근무의욕 고취에도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점검 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도 밝고 단정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제시 상수도 홈페이지에 점검원 사진, 이름, 담당구역을 공개하는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안전 서비스 뿐 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담당구역 점검원을 기재해 열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장애등급제 폐지

7월부터 '장애등급' → '장애정도' 로 변경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에게 획일적으로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가 차질없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 지원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는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 1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개정, 법률상 장애등급제를 폐지(법 제32조)했다.

김제시는 이번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기존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과 용어 정비 등 관련 부서의 조례 개정 사항을 발굴하고, 시행일 이전에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명석 주민복지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련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저소득층 학생 우유 급식 지원

관내 재학생 2700여명 무상 지원

완주군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위해 우유를 지원한다. 완주군은 2019년도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을 통해 무상우유 급식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영양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우유 음용습관 형성을 통해 소비자 기반을 확대시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 대상자로 2700여명의 학생에게 급식일수 235일 이내로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품목은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로 학교여건에 따라 주 2회 이내에서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가공우유, 치즈, 발효우유 등)도 가능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상급식 대상지는 학교에서 학생 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 대상자 외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가정의 학생도 고려해 선정한다. 정재운 농업축산과장은 "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완주군의 미래인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켜 차후 낙농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문화정책 공약 우수상 수상

한국문화가치대상서 ... 도내 자치단체 군 단위 중 유일

완주군이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 민선7기 문화정책 공약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완주군은 25일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이사장 김명곤) 주관한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공약을 평가한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민선7기 문화 정책 공약 2000여 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번 수상 지자체를 결정했다. 수상 자치단체는 전국 30곳(광역시 12, 기초 18)으로, 완주군은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문화자원 개발과 활용' 분야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완주군은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에도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트레네상스 완주를 군정 3대 비전 중 하나로 정하고 ▲완주 낭만가도 조성 ▲삼례문화예술촌 3단계 ▲어린이?청소년 체험관광 랜드마크

크 조기구축 ▲아파르 트네상스 2단계 ▲완주정신 부흥 프로젝트 등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 개발 및 정착을 위한 공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완주군민의 문화가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 문화정책 수립 및 이행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의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올해가 시행 첫 회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발굴 및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김제시는 25일 성덕면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시장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성덕면, 2019년 시민과의 대화 개최

김제시 성덕면(면장 서상원)은 25일 성덕면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민선7기 시장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생생한 현장 대화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이루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시민과의 대화에는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나인권 도의원, 이병철·정형철 시의원 등과 각 사회단체장 및 지역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시장계획 설명에

이어 성덕면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설명, 주민 의견수렴, 식후행사, 현장방문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성덕면민들께 깊은 감사와 드리고 면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의로 경제 도약하는 김제 시민의 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3월부터 구내식당을 휴업하는 '완주군청 외식하는 날'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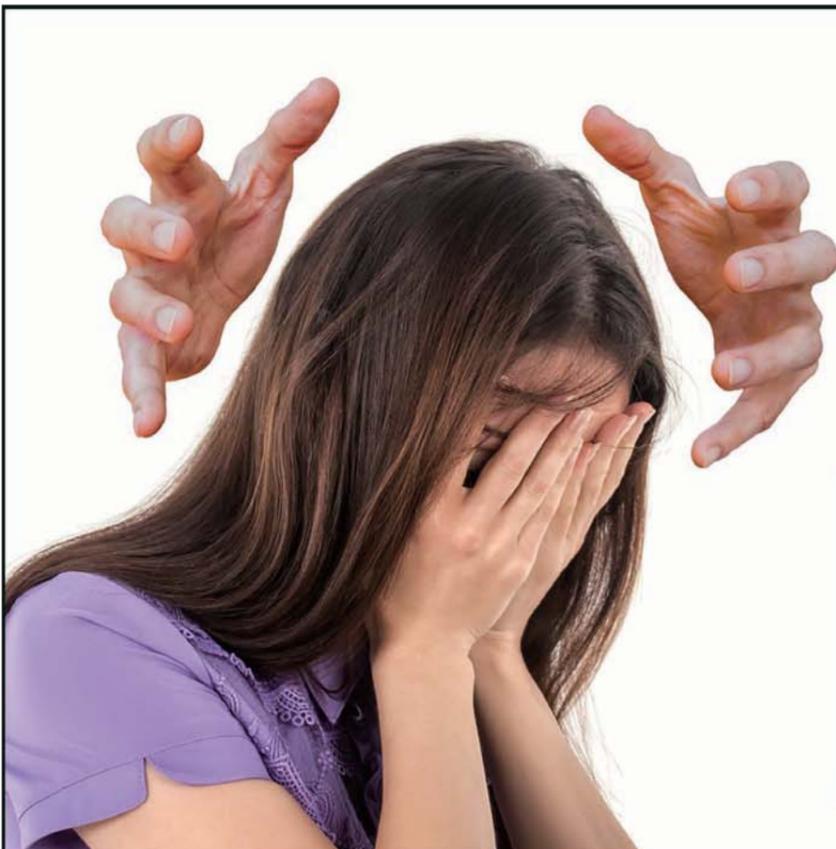
완주군, 내달부터 '외식하는 날'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완주군이 구내식당을 휴업하는 '완주군청 외식하는 날'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한다. 완주군은 내수경기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군청 구내식당 운영업체인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과 협력을 거쳐 '완주군청 외식하는 날'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외식하는 날은 매월 2회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로 정해 구내식당을 휴업하고 군청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도려한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직원들이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농가와 지역상인과의 상생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지는 뜻을 같이해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